

시론



김영식

남부대학교수·웃음영상전문가

불황 타격은 'Smile' 운동으로 극복하자

'S.M.I.L.L.E.'는 Subscription(커피 구독 시대), Modification(MZ세대 취향 저격한 커피의 무한 변신), Identification(커피 존재감), Luxuriousness(고품격 홈카페 문화), Environment(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 커피)로 영어 앞글자 따서 만든 단어다. '우린 언제나 커피 합니다'와 같은 의미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커피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들에게 웃음을 짓게 해 줄 수 있는 커피 산업과 문화의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S(Subscription): 비대면 시대에 '정기구독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과거에는 신문, 잡지, 우유로 대표되던 정기구독 서비스가 일상화되었다면, 취향에 맞는 원두를 집에서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 M(Modification):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문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실시간 홈쇼핑을 이용해 구매 패턴이 변화에 맞는 소비생활을 즐기는 MZ고객

들에게 판매자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다. 셋, I(Identification): 새롭게 탄생한 커피의 '존재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앞으로의 커피 산업은 '슬로우 커피' 시장의 확대 등을 예상했다. 슬로우 커피는 고품질의 신선한 원두를 바리스타가 직접 갈아내는 것으로 많은 커피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넷, L(Luxuriousness): '하나를 마시더라도 우아하게 마시자.'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여유로움과 달콤함을 선사하는 커피 시장에서 고객 취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한 재료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가 강조된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다섯, E(Environment): '친환경' 문화 전파다.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여러 식품업계 기업에서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생분해성 종이컵, 종이 빨대 등 친

환경 제품을 통해 환경사랑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의 산업과는 전혀 다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감을 마련하는 현명함은 삶에서 배우는 직감적인 행동이다.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인 '소확행'을 실천하자. 요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한다. 좌우 진영의 논리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 대내외적으로 선진화된 긍정적 의식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이다. '우린 언제나 커피 합니다'라는 문구 대신 '우린 언제나 스마일 합니다'로 생각을 전환하여 국민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면서 힘써도 '웃자'.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울이라 너 혼자 울 것이요, 웃어라 세상이 함께 웃을 것이다'. 따뜻한 '웃음차' 한 잔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겠다.

社說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사업 성공의 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제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전남은 이용섭 시장이 대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 빛고를 스마트 메가시티, 남해안 신성장 권역 등 3건의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 가능한 것은 물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전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로 경제 행정통합은 공동번영의 길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와 신해양·환경수도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제수도, 행정수도에 이은 대한민국 제3의 수도로 '신해양·환경수도'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에 조성해 해양·환경 분야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초광역 협력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계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형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의 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년 숙원인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대표적으로, 광주와 대구 간에 1시간대의 고속철도가 열리면 1천800만 동서 경제권이 구축돼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어서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수도권과 더불어 성장하는 새 경제권의 제대로 된 초석을 다져야 한다. 지역과의 상생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만들어 과감하게 중앙의 권한을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겠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속 제기해온 요구이기도 하다. 지방부권의 큰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성공을 약속해줄 바란다.

전국대비 1%, 광주의 초라한 엔젤투자 유치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금과 경영 자문을 지원해 성장시킨 후 이익을 회수하는 개인 단위 투자로, 지역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비 확보 및 고용 창출 자금을 지원해 생태계의 활성화와 스타트업 조성을 돕고 있다. AI(인공지능) 선도도시, 광주형 일자리에 기반한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 등으로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의 엔젤투자 유치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누가 뭐랄 것 없이 여전히 엔젤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광주시는 전문기관이 부재하고, 인식 개선 및 발굴, 초기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의 자리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강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배려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갑)이 증가부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10년간 지역별 엔젤투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는

전체 3조 2천781억 중 336억원에 그쳤다. 전국 대비 고작 1%, 예상을 뛰어넘는다. 반면 서울이 전체의 46%, 경기도가 27%를 차지하는 등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75%에 달한다. 광주의 10년간 투자기업 유치 건도 7천609개 가운데 1.2%인 93개로 최하위권이다. 엔젤투자자는 뛰어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창업자와 구성원들의 역량을 눈여겨 본다.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으로 제1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기업의 미래가치, 성장성에 배정한다.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에 투자해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도없이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나서야 겨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광주시는 최근 스타트업 2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2박3일 동안 1:1 집중 코칭 및 멘토링 행사를 가졌다.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투자자와 지역의 창업자가 만나 유익한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치칼럼



임우진

민선 6기 광주서구청장

지역독점지배 정치구조, 어찌할 것인가

영·호남, 특히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지역독점 지배구조는 당분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정치권력의 독점지배가 장기화되면 세력이 확대 강화되고, 지역민들은 그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역사회는 다양성과 비판의식이 약화되게 된다. 그리하여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정치와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 불공정, 부패에 이르게 되고, 지역사회는 다양성과 활력을 잃고 획일화된다. 인간의 권력욕과 불완전성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철칙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독점은 지역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협상력을 약화시켜 지역의 성숙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는 지금, 정치의 지역분할 독점지배체제는 정치와 지역·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영·호남 지역사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안처럼 토폴 뭉쳐 지역 지배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을 도입할 것인가? 필자는 이제는 영·호남 양 지역 모두 과거의 독재정부가 조장한 지역감정과 양심 경쟁 시대의 프레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라고 본다. 학자들은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보수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3번이

나 호남이 주도하여 원하는 대통령을 뽑고 진보정부를 세워 그동안의 소외의 한을 풀기도 했다. 5·18과 관련, 남아있는 과제들도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양 지역 모두 지역의 정치적 독점체제가 지역의 낙후와 쇠퇴의 최대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의 폐해를 직시하고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는 영·호남 각 지역을 위하고, 그 지역의 지배정당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쟁적 정치구조를 인위적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러면 지역사회의 정치적 독점지배체제의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러한 개혁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그동안 중대선거제, 석패율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지역정당제 등 수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 왔다. 또한 지역민들이 독점지배의 폐해를 깨닫고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제도개선 없이 지역민의 선거혁명이든 지역민이 각성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의 폐해를 자각하게 하는 다양한 계몽적 노력이 정치개혁의 출발

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계몽 또는 문제제기 노력을 살펴보면 영·호남 지역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호남지역은 영남지역과 비교하여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 구조의 개선과 관련한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지역은 정치적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폐해가 있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남지방의 경우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체제에 대한 지역사회적 논의가 그런대로 활발한 편이다. 인터넷포탈을 검색해보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론인, 지식인,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설, 기사, 기고, 성명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적 노력이 부산 경남을 경쟁적 정치구도로 변화시켰다고 봐도 될 것이다. 또한 영남지역에서의 정치적 독점지배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역 책임자, 선거이후보자들에게 의해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광주 전남지역은 지역의 일당 독점지배의 문제점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지역사회의 현주소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성해야 할 때다.

독자투고



정혜영

'위드 코로나' 비대면 디지털 소통 시대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의 제정을 변경해 올해 6월 10일 시행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와 교육의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있듯 정보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정보 활용 계획이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기존 고령층을 비롯한 농어민·장애인·저소득층의 계층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주 5일 20명씩 대면 교육을 실시

시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제한되고 있어 새로운 비대면 교육이 절실하다. 디지털로 모든 게 이뤄지는 현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서 '텔레스터디(Tele Study)', 직장일을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텔레워크(Tele Work)'가 일반화 돼가고 있다. 디지털의 기술은 더욱 각광받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과 실행이 시급하다. <정홍준충무파>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비대면 스마트 통합미디어 플랫폼'을 도입해 비대면 맞춤 교육으로 정보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온라인 민원인 상담회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스마트 기기(모바일, 태블릿 등)를 활용한 이동형 화상 회의와 비대면 온라인 행사, 방송 지원 등 행정에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역사회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홍준충무파>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아침물어는 詩

건강검진

김제현



건강검진표를 들고 병원엘 간다 키 167cm 체중 64kg 시력은 좌우 0.7 청력은 좌우 정상 늘 궁금하던 영혼의 무게를 달아 본다 아무런 숫자도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도 내 머리 속엔 영혼이 없나 보다 (시집 '시간', 고요아침, 2021)

【시의 눈】

운동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현대, 한낱 기온이 30도 사이를 오가는군요. 비도 찾아 습도 또한 높습니다. 코로내에, 일교차에, 유행할 인플루엔자에 걱정입니다. 참, 그리고 보니 검진을 받으 시키이군요. 이게 무슨 감장정 격정거리라도 되듯 절도 돌아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곧 대성자가 물리니 당당겨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옵니다. 검진 후 얼마간은 좌불안석이지요. '혹여', '실마' 하다가 '정상'이라면 숨을 돌리기도 합니다. 정상통보를 자랑하며 참된 술담배를 입에 대는 이도 있습니다. 화자는 궁금하던 차 영혼을 곧 달아봅니다. 현대 아무런 숫자도 떠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종 건강검진으로 영혼이 비워져간다는 제 위기를 말합니다. 소파 위 잊어먹은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발견하는 것 말고, 병동실에서 머느리가 발견해 고등어인 줄 알고 튀길 뻔 했다는 그 치매를 의심하는 것이지요. 영혼을 잃으면 니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지만 날아갈까 그걸 지키지요. 나도 아침 산을 오르며 영혼을 옮겨줍니다. 산 아래는 지팡이를 뺀치며 백수(白首)들이 공원을 걷고 있군요. 찬바람이 불니다. 모자행을 당합니다. 저기 울라오는 사람도 영혼을 지키려는지 용크린 몸으로 긴 스틱을 정성스레 내딛습니다. 김제현 시인은 전남 장흥에서 나. 경기도 국문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196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1963년 '현대문학' 천로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동토'(1966), '무상의 별빛'(2007), '우물 안 개구리'(2010), '몽경'(2013)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시조에 대해 오래 강의해왔으며, 주로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한 사색과 통찰이 깊은 순수 우리 시를 추구하는 원로 시인입니다. <노청수·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